



미래지향적으로 적정규모의 군사비 유지해야...



지난 7월 29일 한국정책학회(회장 노화준 서울대교수)는 「전방위 안보시대의 국방비」를 주제로 서울 힐튼호텔에서 200여명의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정책토론회를 가졌다.

신정현 교수(경희大)의 사회로 황명수 국회국방위원장의 기조연설, 「안보환경

변화와 국방비」(최종철 평화전략연구소 연구실장), 「국방비 결정체계 및 제도분석」(정숙종 아주대교수), 「국방비 적정 규모분석」(강명길 국방연구원 연구위원) 등 3편의 논문발표와 토론, 만찬순으로 진행됐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총괄안보」 차원에서 국방비와 군사력의 적정규모에 관한 체계적인 재검토와 충분한 연구가 있어야 한다는데 의견일치를 보았다. 또한 국방비와 군사력의 적정규모에 대한 국방정책결정자 집단과 관계전문가간의 심도있는 연구-검토를 거치고, 국민여론도 수렴하기 위한 「국방정책 대프로젝트」를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國科研 국방과학기술 한글 시소러스 개발

국방 과학연구소 기술정보센터가 국방 과학기술 한글 시소러스를 개발하여 국방과학 관련 한글 데이터베이스 관리 및 검색에 획기적인 전기를 마련하였다.

國科研은 '92년 6월부터 올해 7월까지 2년여에 걸쳐 관련 학계의 교수진들에게 의뢰하여 23,000여 용어를 표준화하고 동의어, 관련어 등의 선정이 용이하도록 각 용어의 개념적 관계를 총 정리하는 통제어휘집 즉 시소러스의 개발을 완료하였다.

시소러스는 정보검색에서 시스템과 검색자간의 교량적 역할을 하는 정보검색도구로 정보자료를 데이터베이스에 입력할 때의 색인어 선정과 필요한 정보자료를 검색할 때에 탐색어 선정을 통제해 줌으로써 정보검색의 효율을 높이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선진국에서는 다양한 주제분야에 걸쳐 약 500여종의 주제별 시소러스가 개발되어 정보검색분야에 널리 활용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정보처리기법에 대한 인식 부족과 시소러스에 관한 연구개발이 전혀 축적되어 있지 않아 자체적으로 개발한 우리말 시소러스가 전무한 실정이다.

다만 일부 주제분야에서 외국의 시소러스를 한글로 번역한 시소러스가 몇개 나와 있을 뿐이다. 이번에 개발된 시소러스의 색인어 총수는 23,126개어로 우선어(디스크립터) 17,915개어, 비우선어(넌디스크립터) 5,211개어로 구성되어 있다. 앞으로 기술정보 관리의 체계화 및 이용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책자 형태로 발간하여 軍 관련 기관 및 방산 업체에 배포하여 활용토록 할 계획이다. *